최근 중국의 금융리스크와 리스업 동향 점검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 은 영 (liey@kdb.co.kr)

◆ 최근 경기둔화, 부동산 규제 강화로 중국의 지방은행, 신탁회사의 부실 사례가 증가, '안전지대'였던 리스업계에도 이자연체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점검 필요

◆ 일부 은행계 금융리스사들은 여전히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리스업 전반적으로는 실적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므로, 모회사가 '자본보충 의무'를 지는 금융리스사라 하더라도 최근 실적 동향과 모회사의 잠재적 부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

□ 최근 중국의 일부 지방은행과 신탁회사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으며, 민영 투자사 산하 리스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 리스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

○ 올해 들어 바오샹 은행, 안신신탁 등의 금융기관 부실 사태가 수면 위로 부상

- 도시, 농촌은행 등 지방은행 부실대출이 급증*하는 가운데, '19.4월 진저우은행 주식이 홍콩에서 거래 중지되었고 '19.5월 바오샹은행 경영권이 금융당국에 이관

* 전국 규모의 대형은행과 주식제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세는 둔화되나 지방은행의 증가율은 '19년 들어 80%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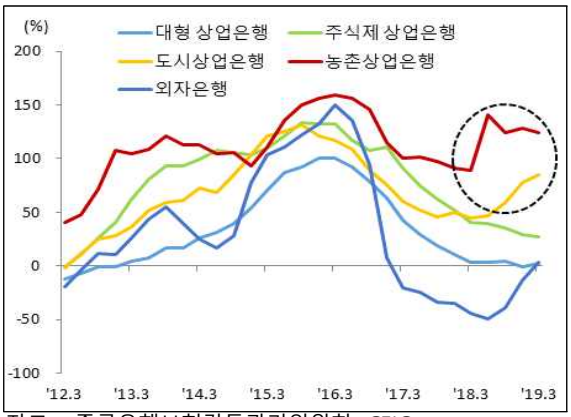
- '19.6월 안신신탁은 25개 신탁상품의 원리금 상환에 실패

○ 특히 중국 최대 민영투자사인 중국민생투자*와 그 자회사인 중민투융자리스 지주 및 중민국제융자리스가 이자연체 등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, '안전지대'**로 여겨졌던 중국 리스업에 대해서도 불안심리 형성

* 쑤닝전기, 화룬그룹 등 59개 민영기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투자회사로 부동산, 보험, 리스 등 자회사 보유. '15년 동사의 자회사인 중민투리스지주회사(64.17%)와 하나금융(25%)이 합작으로 중민국제융자리스 설립

** 실물경제 연계성이 높은 분야로 인식되어 우호적 정책 환경이 지속, 그간의 경기둔화에도 가파른 성장세 유지

중국의 지방은행(도시, 농촌) 부실대출 증가율



자료 :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, CEIC

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국의 금융기관

기관명	내용
진저우 은행	· 2년간 사업보고서 미공개, '19.4 홍콩증시 거래 중지 · 공상은행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동 은행 지분 인수
바오샹 은행	· 사정대상 밍톈그룹 계열 동 은행 등의 자금전용 혐의 · '19.5 인민은행, 은보감회가 경영권 접수(1년 기한)
안신 신탁	· '19.6 100억위안 상당 25개 신탁상품 원리금 디폴트 · 부동산 경기둔화로 관련 기업 대출 리스크 확대
중국민생 투자	· '19.2 유동성 우려로 회사채 가격 급락 및 거래정지 · '19.4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기술적 디폴트 발생
중민국제 융자리스	· '19.4 발표된 신용보고서를 통해 1.8억위안 미지급 이자, 6.7억위안 '요주의 대출' 등이 공개

자료 : 국내외 언론 보도 정리

□ 경기둔화 심화와 부동산 규제 강화 영향으로 중국 금융업계 전반의 리스크가 점증하는 가운데, 일부 은행계 리스사들은 모은행을 상회하는 실적 호조세 지속

○ 중국정부는 미·중 무역갈등 등으로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부동산 분야 자금유입 규제를 강화,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유발

- 실물경기 부양이 목적인 통화완화 정책의 '부작용'으로 부동산 투자 증가세가 재개되자, 규제가 느슨했던 신탁회사와 사모펀드 등의 부동산 개발 참여 억제*

* 부동산에 투자된 금전신탁 증가율은 '17.4Q 59.7%를 기록하였고 '19.1Q까지 두 자릿수 증가세 유지

·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'15년 10%에서 '19.6월 5.8%로 둔화된 반면, 동기간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2.5%에서 11%로 상승

· 당국은 금융권이 부동산 개발사에 토지양도금융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신탁사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는 한편, 부동산 기업 외채 발행 규모를 제한(1년 이내 만기 채권의 중장기채 전환만 허용)*

* '19.5월 <시장 무질서 정돈 성과 공고화, 규범 부합 건설사업 촉진 업무에 관한 통지>, '19.7월 <부동산 기업 외채 발행 신청문건 등록 관련 요구사항에 관한 통지> 등 참고

- 신규 자금유입이 제한되어 중소 부동산 개발사와 관련 금융기관의 디폴트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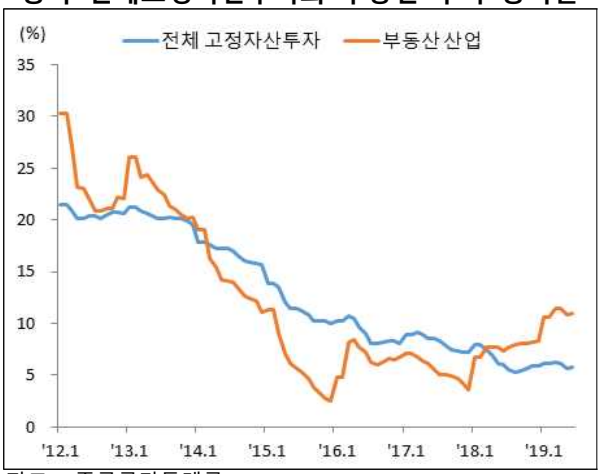
○ 국가개발은행(CDB)리스 등 은행계 리스사들은 항공기 등의 동산 자산과 운용리스 비중 확대를 통해 경제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호조세 지속

- CDB, 교통은행, 중신은행, 농업은행 산하 리스사의 '18년 순이익 증가율은 10% 상회

· CDB 리스의 '18년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25.1%, 부실자산 비율은 0.89%로 모은행인 국가개발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율 △1.35%, NPL 비율 0.92%보다 양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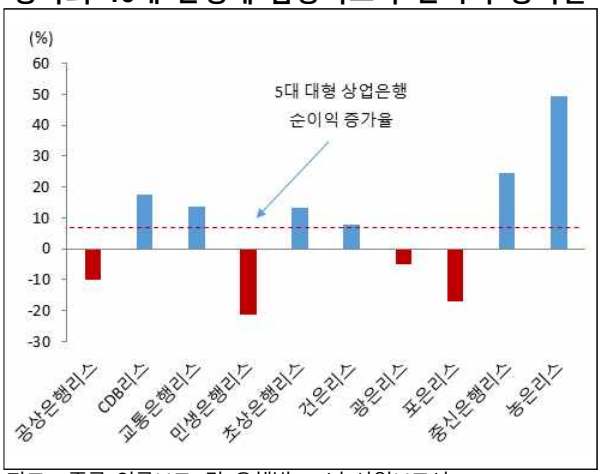
· 교통은행, 초상은행, 건설은행, 중신은행, 농업은행 산하 금융리스사 역시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모은행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 유지

중국 전체고정자산투자와 부동산 투자 증가율



자료 : 중국국가통계국, CEIC

중국의 10대 은행계 금융리스사 순이익 증가율



자료 : 중국 언론보도, 각 은행별 '18년 사업보고서

○ 최대 은행계 리스사인 공상은행 리스와 민생은행 리스, 포동개발은행 리스, 광대은행 리스 등의 '18년 순이익은 전년 대비 9.89%, 21.37%, 17.17%, 5.05% 감소

- 이들 업체는 증자나 자산 축소 등을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*

* 공상은행 등이 대거 증자에 나서면서 '18년 금융리스사의 증자규모는 전년 대비 86% 증가한 440억위안

□ 그러나 여타 융자리스사*들은 업체간 경쟁 심화 등으로 실적 둔화가 본격화되고, 관리감독 주체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건전성 강화 압력 증대

* 융자리스는 중국에서 운용리스의 반대 개념인 금융리스(Financial Leasing)를 지칭하는 용어. 융자리스사는 금융리스사(라이센스要, 사명에 '금융리스' 표기)와 그 외 로컬자본으로 운영되는 內資리스사, 외자가 참여하는 外資리스사로 구성. '금융'리스사에 한해 은행간 대출,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고 엄격한 기준 적용

○ 경기둔화에도 융자리스 업체 증가세는 20%대에 달해 업체당 평균 영업규모 감소

- 국유기업의 적자 규모는 '19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, 상반기 기준 9.7% 증가
- 전체 융자리스업 규모는 '18년 기준 6조 6,500억위안(1,143.3조원)으로, '10년부터 줄곧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'18년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9.4% 기록
- 중민국제융자리스와 같은 외자리스사를 중심으로 업체 수 급증세가 지속되어, 업체당 평균 영업규모는 6.3억위안에서 5.6억위안(962.8억원)으로 감소
  · 전체 융자리스 업체 수는 '17년 9,676개에서 '18년 11,777개로 증가하였고, 특히 외자리스사는 동기간 9,327개에서 11,311개로 증가하며 급증세 지속

○ 중국정부는 '18.5월 융자리스사의 관리감독 주체를 일원화*하여 점진적으로 내자리스와 외자리스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금융리스사 수준으로 강화할 소지

* '18.5월 상무부가 발표한 <융자리스사, 팩토링회사, 전당포의 관리책임 조정 사항에 관한 통지> 참고

- 금융리스사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은보감회), 여타 융자리스사는 상무부 관할이었으나, 동 조치로 모든 융자리스사는 관리감독이 엄격한 은보감회가 담당

중국 융자리스사 유형별 개수와 평균 계약잔액

(단위 : 개, 억위안, %)

업체 유형		내자	외자	금융	전체
'17년	개수	280	9,327	69	9,676
	평균 계약잔액	67.1	2.1	330.4	6.3
'18년	개수	397	11,311	69	11,777
	평균 계약잔액	52.4	1.8	362.3	5.6
업체 수 증가율		41.8	21.3	0	21.7
업체 수 비중		3.4	96.0	0.6	100.0

자료 : 중국리스연맹, 天津滨海融资租赁研究院(텐진빈하이융자리스연구원)

중국 69개 금융리스사의 모회사 유형별 개수



자료 : 중국 언론보도 정리

□ **위기시 모은행의 '자본보충 의무'가 강제되는 은행계 리스사*라 하더라도 모은행의 부실 소지,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**

* 금융리스 라이센스를 보유한 중국의 금융리스사는 총 69개사. 이 중 은행이 모회사이거나 지분을 보유한 업체는 47개로 68.1% 차지(은행 보유 지분 100% 9개, 지배주주 34개, 지분참여 4개)

○ 중국 리스업 감독관리 규정상 금융리스사의 영업 경쟁력과 신용도는 모회사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음

- <금융리스사 관리방법>*에 따르면, 금융리스사의 발기인은 자회사의 유동성 부족 및 자본잠식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지원 및 자본보충 의무가 있음

* '14.3월 발표된 <동 방법> 제16조 참고

· S&P는 '18년 공상은행리스의 총자산과 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동 조항을 감안, '19.7월 동사 발행 채권에 대해 신용등급 AAA(안정적 전망) 등급 부여*

* S&P가 '19.1월 중국 신용평가 시장 진출 인허가를 받은 이후의 최초 등급 평정 사례

- 반면 금융리스사를 제외한 내자융자리스, 외자융자리스사의 경우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고, 은행간 대출, 금융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아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편

○ 최근 금융기관 디폴트가 증가하고 있어 리스사 자체의 영업실적 추이와 건전성 등은 물론이고 모회사의 잠재적인 부실 소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

- 최근 민영기업과 일부 지방은행 디폴트 증가 및 부동산 규제 강화 배경에는 금융리스크 억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
- '18년 순이익이 감소한 민생은행 금융리스, 포동개발은행 금융리스, 광대은행 금융리스 등의 모은행 경영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

· 광대은행과 민생은행의 '18년 NPL 비율은 각각 1.59%, 1.76%*로 양호한 편이고 순이익은 6.67%, 2.75%씩 상승

* '18.6월 은보감회는 은행권 NPL 분류 기준 강화 조치를 발표하여, 90일 이상 연체된 모든 대출을 부실대출에 포함. 이에 따라 만기 연장, 담보설정 등을 통해 부실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관행 차단

· 포동개발은행의 경우, NPL 비율은 '17년 2.14%에서 '18년 1.92%로 하락하였으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.16% 감소

- 지방은행 산하 허난지우딩(河南九鼎) 금융리스*의 '18년 총자산은 전년 대비 47.58% 증가한 데 반해 순이익은 16.81% 감소, 동사와 모은행에 대한 주의 필요

* '16.10월 설립된 금융리스사로 허난성 지방은행인 정주은행이 지분 51%를 보유. 정주은행의 '18년 순이익은 약 30% 감소하였고 NPL 비율은 '17년 1.50%에서 '19.1분기 기준 2.46%로 상승